

한국복식학회지 [服飾]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분석

-창간호(1977)부터 51권 8호(2001)까지-

이 미 숙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 Content Analysis of Articles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977~2001

Mi-Suk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4. 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volumes 1 through 51-8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in relation to past trends in content area of research reported, authorship, and funding source. Six subject matter areas were indentified: history of costume, apparel design and aesthetics, fashion marketing,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lothing, clothing construction, textile science and etc.

Of the 892 articles studies, history of costume research represented 40.1%(358). Studies which focused on apparel design and aesthetics increased in number as the journal matured, 51.8%(462) were authored by a sole individual, 48.2%(430) were authored by above two persons. Funding sources were indentified in 15.7%(140) of the 892 articles. College and university grants 72.9%(102) were acknowledged most frequently as a funding source.

Key Words: subject areas(연구분야), research method(연구방법), number of researcher(연구자수), funding source(연구비 출처)

I. 서 론

Goldsmith(1983)가 한 분야의 저널을 분석함으로써 그 분야의 진보와 학문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학술지는 해당

분야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하고 그 분야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대학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수들의 연구실적심사를 강화하려는 추세는 의류학 진반과 의류학 관련 학술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시점에서 국내 의류학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복식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服飾]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국내 복식학의 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조망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는 이미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Montgomery와 Ritchey(1975)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발간된 38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가정학 관계 논문들의 주제영역을 고찰하였고, Chowdhary와 Meacham(1983~84)은 1911년부터 1980년까지 70년동안 가정학 전문학회지인 Journal of Home Economics(JHE)와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HERJ)로부터 의류학의 연구주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조사하였다. 한편 Goldsmith(1983)는 1972년부터 1980년까지 HERJ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이외에 저자, 연구지원금 출처, 참고문헌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1984년에는 1972년부터 1982년까지 JHE와 HERJ에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의 논문의 양, 소속대학, 전공분야, 학위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Oliver와 Mahoney(1991)도 1982년부터 1989년까지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 연구방법, 소속대학, 공동연구, 연구비 수혜, 참고문헌에 대해 고찰하였다. Lix(1995)는 CTRJ, HERJ와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에 게재된 의류학 논문의 통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Lanker 등(1997)은 미국의 CTRJ와 HERJ에 게재된 의류학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저자들, 그리고 그 저자들의 소속대학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내에서는 문수채와 이기열(1984)이 1959년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7개 분야로 분류하였고, 김미자(1990)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문 분석을 통해 한국복식의 30년간(1958~1989)의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정찬진 등(1991)은 1959년에서 1990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복식학회지에 실린 의류학 관련논문들의 연도별, 학회지

별로 연구주제의 분류 및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김정호(1999)는 한국의류학회지와 한국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연구주제의 분류를 통해서 1990년대의 국내 의류학 연구현황을 고찰하였다. 한편 성화경 등(1994)은 1977년 창간호부터 1992년까지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연구지원금, 저자 및 인용된 참고문헌 등에 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고, 황덕순 등(1995)은 1959년 창간호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자의 지위와 소속, 연구자수, 연구비 수혜여부, 사용언어, 논문분량, 참고문헌수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주제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가 있었을 뿐, 대한가정학회지나 한국의류학회지처럼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의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복식학회지 [服飾]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1977년 창간호부터 2001년 12월까지 게재된 총 892편의 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자의 지위와 소속, 연구자수, 공동연구구성원, 연구비 수혜여부와 출처, 사용언어, 논문분량, 참고문헌수 등을 분석함으로써 복식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복식지의 질적향상에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의류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정찬진 등(1991)과 김정호(1999)의 연구와 달리 복식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동향에 대한 결과가 국내 의류학 분야의 전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창간호부터 최근의 자료인 2001년까지, 사실상 한국복식학회 및 복식학의 역사를 섭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전문 학술지 중의 하나인 한국복식학회지 [服飾]을 선정하여 1977년 창간호부터 2001년 51권 8호까지 총 65권에 게재된 논문 892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1977년부터 2001년까지 복식지에 게재된 892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복식지 발간 및 게재 논문의 현황, 연구분야, 연구방법, 연구자 지위와 소속, 연구자수, 공동연구 구성원, 연구비 수혜여부와 출처, 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참고문헌수 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식지 발간 및 게재 논문의 현황

1977년 창간호부터 2001년까지 복식지의 발간 현황과 게재된 논문수 및 연도별 게재논문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2) 의류학 연구분야의 분류

의류학 연구분야의 분류는 한국의류학회에서 1999년에 발표한 의류학 교과과정 연구보고서와 대학가정학회에서 1977년과 1984년, 1999년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가정학 연구 최신정보 1·2·3과 정찬진 등(1991), 성화경 등(1994), 김정호(199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와 각 영역의 전공자들과 토의를 거쳐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류학의 연구분야는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기타(연구방법론, 교육) 등의 7개 분야이다. 연구분야의 분류는 일차적으로는 제목과 서론에 의하였고, 연구분야가 복합적인 경우는 논문전체와 연구자들의 전공을 참고하여 지배적인 분야에 포함시켰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Oliver & Mahoney(1991)와 Lennon 등(1995)의 연구에서 분류한 연구방법을 참고로, 논설적이거나 문헌,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것은 문헌조사법(editorial study), 조사자료를 분석하는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나 요인분석, 혹은 간단한 기술통계를 사용하거나 가설검증을 위해 여러 추리통계를 사용한 것은 질문지 조사법(survey), 가설검증을 위해 실험설계를 사용한 연구는 실험법(experimental study),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나 심층 인터뷰를 한 연구와 단순히 문헌고찰이 아닌 유물이나 실물을 직접 관찰한 연구, 이론을 토대로 디자인 창작이나 개발을 시도한 연구 등은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로 분류하였다. 두가지 이상의 방법이 혼용된 경우에는 전공자들과 토의를 통해서 보다 지배적인 방법으로 최종 결정했다.

(4) 연구자

대표 연구자의 직위와 소속, 연구자수 및 구성원에 대한 분석이다. 공동연구의 구성원은 편의상 교수/교수/, 교수/기타, 교수/대학원생, 기타 등으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즉 교수와 교수, 교수와 교수, 시간강사, 교수와 교수, 기타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연구는 교수/교수로, 교수와 시간강사, 교수와 연구원, 교수와 패션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연구는 교수/기타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수행한 연구는 교수/대학원생으로, 강사와 강사, 강사와 대학원생 등과 같이 교수를 제외한 연구자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5) 연구비

논문의 첫페이지 하단에 표기된 주석부분을 참조로 연구비 수혜와 출처를 조사하였다. 송혁순(2001)의 연구에 의하면 교내 연구비의 경우 교수들은 학문 영역별로 큰 편차없이 지난 5년간 평균 1천 173만원의 연구비를 수혜했고, 교외 연구비의 경우 공학교수가 인문학교수보다 14배 이상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외 연구비는 교내 연구비와는 달리 학문 영역별로 균등하게 수혜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고려해서 교

외 연구비의 수혜율과 출처 및 수혜한 연구자의 직위, 연구분야를 고찰하였다.

(6) 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평균참고문헌수
 논문 본문에 사용된 언어의 종류 및 평균논문분량, 평균참고문헌수를 연도별, 연구분야별로 살펴 보았다.

3. 자료분석 방법 및 신뢰도

수집된 자료는 연도별,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각 분석항목에 따른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197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1977~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1 등 5개 단위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 프로그램은 SPSS PC+를 이용한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연구분야별 분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연구분야별 분류의 일치정도로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총 분석 대상 892편의 논문중에서 표집간격을 10으로 하고 체계적 표집방법으로 90편의 논문을 표집하여, 이것을 두 조의 연구자가 각각 위의 연구분야로 분류하여 상호일치정도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 일치도는 0.91이었다.

III. 결과 및 논의

1. 복식지 발간 및 게재 논문의 현황

1977년 창간호부터 2001년까지의 복식지의 발간 현황은 <표 1>과 같다. 즉 1977년 창간이후 1989년까지는 1979년과 1981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1권씩 총 13권이 발간되었으며, 13권까지 게재된 총

<표 1> 복식지 발간 현황

연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계
권수	1	1	0	1	2	1	1	1	1	1	1	1	1	2	2	2	2	2	3	4	5	6	8	8	8	65
편수	9	9	0	6	23	11	8	5	6	6	4	5	10	33	36	39	32	36	51	66	88	95	111	104	96	892

논문수는 102편이었다. 1호씩 발행되던 학회지가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1년에 2호씩 발간되어 총 10호에 176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1995년에는 3호, 1996년에는 4호, 97년에는 5호, 1998년에는 6호로 점차 증가되어 총 18호에 30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 분위기와 연구논문 신청증가에 따라 99년부터는 연 8회에 걸쳐 발행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4호에 3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와 같이 복식지의 연간 발간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논문편수도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1977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은 65권에 892편이었다.

게재된 논문수를 연도별<표 2>로 보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24편,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53편,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61편,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194편,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560편으로 괄목할만한 양적인 팽창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의류학 관련학과의 수가 많아졌고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연도별 논문의 분포

논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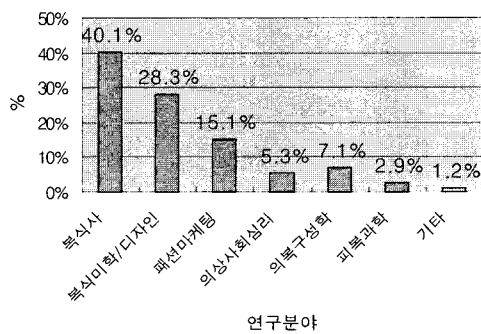
연도	'77~ '80	'81~ '85	'86~ '90	'91~ '95	'96~ '01	계
권(호)수	3	6	6	11	39	65
논문수	24 (2.7)	53 (5.9)	61 (6.8)	194 (21.7)	560 (62.8)	892 (100)

2. 연구분야

(1) 연구분야별 분포

총 892편의 논문을 연구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복식사 분야로 40.1%(358)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복식미학/디자인 28.3%(252), 패션마케팅 15.1% (135), 의복구성학 7.1%(63), 의상사회심리 5.3% (47), 피복과학 2.9%(26), 기타 1.2%(11) 순이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논문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전공영역별로 전문학회지가 있는 경우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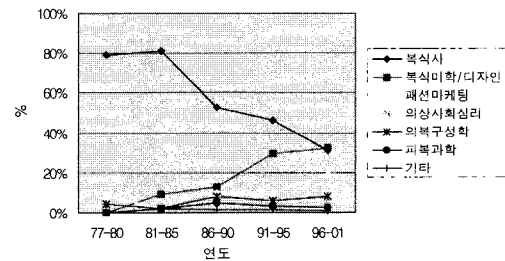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분야별 분포

(2) 연도별 연구분야의 분포

연도별 연구분야의 분포상태<표 3>와 변화 추이<그림 2>를 보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복식사가 79.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여전히 복식사가 81.1% (43)로 1위로 나타났지만, 복식미학/디자인이 9.4% (5)의 증가율을 보였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복식사 52.5%(32), 복식미학/디자인 13.1%(8), 패션마케팅 9.8%(6), 의상사회심리 9.8%(6), 의복구성학 8.2%(5), 피복과학 3.1%(6) 순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등의 논문수는 증가했으나

상대적인 비중은 감소되었고, 복식미학/디자인이 29.4%(57)로 상대적인 비중에서도 16.3%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복식미학/디자인이 32.5%(182)로 복식사의 31.1%(174)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김정호(1999)가 지적한 것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패션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패션마케팅 분야의 논문도 19.1% (107)로 복식학회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도별 연구분야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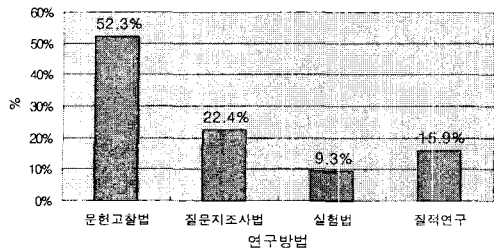
3. 연구방법

총 892편의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그림 3>을 보면, 문헌고찰법이 52.3%(4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질문지 조사법 22.4%(200), 질적 연구 15.9% (142), 실험법 9.3%(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도별 연구분야의 분포

논문수 (%)

연도 \ 연구분야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계
'77~'80	19(79.2)	0(0)	2(8.3)	1(4.2)	1(4.2)	0(0)	1(4.2)	24(100)
'81~'85	43(81.1)	5(9.4)	1(1.9)	1(1.9)	1(1.9)	1(1.9)	1(1.9)	53(100)
'86~'90	32(52.5)	8(13.1)	6(9.8)	6(9.8)	5(8.2)	3(4.9)	1(1.6)	61(100)
'91~'95	90(46.4)	57(29.4)	19(9.8)	8(4.1)	11(5.7)	6(3.1)	3(1.5)	194(100)
'96~'01	174(31.1)	182(32.5)	107(19.1)	31(5.5)	45(8.0)	16(2.9)	5(0.9)	560(100)



<그림 3> 연구방법

연도별로 연구방법의 분포현황<표 4>을 보면, 연도와 상관없이 문헌고찰법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패션 마케팅 논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질문지 조사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연구방법의 분포현황

연도	방법					계
	문헌고찰법	질문지조사법	실험법	질적연구	문헌수(%)	
'77~'80	11(45.8)	4(16.7)	1(4.2)	8(33.3)	24(100)	
'81~'85	33(62.3)	2(3.8)	3(5.7)	15(28.3)	53(100)	
'81~'85	36(59.0)	10(16.4)	6(9.8)	9(14.8)	61(100)	
'91~'95	113(58.2)	33(17.0)	16(8.2)	32(16.5)	194(100)	
'96~'01	274(48.9)	151(27.0)	57(10.2)	78(13.9)	560(100)	
계	467(52.3%)	200(22.4%)	83(9.3%)	142(15.9%)	892(100)	

연구분야별로 연구방법<표 5>을 보면,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은 문헌고찰법이 각각 63.1%(226), 85.7%(216), 패션마케팅과 의상사회심리는 질문지 조사법이 각각 88.1%(119), 83.0%(39), 의복구성학, 피복과학은 실험법이 각각 82.5%(52), 76.9%(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복식사의 연구방법

<표 5> 연구분야별 연구방법

연구분야 방법	논문수(%)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문헌고찰법	226(63.1)	216(85.7)	13(9.6)	6(12.8)	2(3.2)	0(0)	4(36.4)
질문지조사법	21(5.9)	9(3.6)	119(88.1)	39(83.0)	5(7.9)	0(0)	7(63.6)
실험법	4(1.1)	4(1.6)	1(0.7)	2(4.3)	52(82.5)	20(76.9)	0(0)
질적연구	107(29.9)	23(9.1)	2(1.5)	0(0)	4(6.3)	6(23.1)	0(0)
계	358(100)	252(100)	135(100)	47(100)	63(100)	26(100)	11(100)

이 문헌고찰법에 이어 질적연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유물을 고증하거나 미학적, 디자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복식미학/디자인 분야 역시 단순히 이론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창작이나 개발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구자

(1) 대표 연구자의 직위와 소속대학

대표 연구자의 직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처럼 처럼 교수가 19.3%(172)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과 조교, 시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그리고 겸임교수, 연구원, 디자이너 등을 포함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과 조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이 학위논문으로서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표 10>.

<표 6> 대표 연구자의 직위

연구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입강사	시간강사	대학원생/ 조교	기 타	미기재
172(19.3)	79(8.9%)	83(9.3)	59(6.6)	111(12.4)	154(17.3)	29(3.2)	205(23)

대표 연구자의 소속대학 소재지 분포<표 7>를 보면, 서울이 47.5%(4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경북·경남 18.0%(161), 전북·전남 8.6%(77), 경기 7.5%(67), 충북·충남 7.0%(62), 기타 1.9%(17), 외국 1.1%(10), 강원 0.7%(6), 제주 0.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에 상관없이 서울 지역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90년대로 들어 오면서 지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이나 연구소, 박물관, 패션업체 등을 포함한 기타의 비율은 너무나 낮게 나타났다.

구는 43.7%(390), 3인 연구는 3.6%(32)이며, 4인 이상인 연구는 0.9%(8)로 나타났다. 비록 근소한 차이이지만 단독연구가 공동연구의 비율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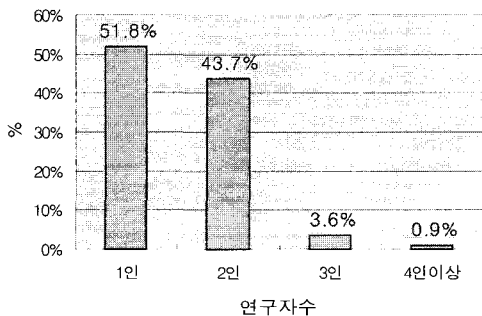
연도별로 연구자수의 분포 상황은 <표 8>과 같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8.3%(2)에 불과했으나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11.3%(6), 1986년부터 1990년까지는 24.6%(15),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37.6%(73),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59.7%(334)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공

<표 7> 대표 연구자의 대학 소재지

연도	소재지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제주	외국	기타	미기재		
'77~'80	5(20.8)	0(0)	0(0)	0(0)	0(0)	1(4.2)	0(0)	0(0)	0(0)	18(75.0)	24(100)	
'81~'85	16(30.2)	1(1.9)	0(0)	0(0)	0(0)	0(0)	0(0)	0(0)	3(5.7)	33(62.2)	53(100)	
'86~'90	34(55.7)	3(4.9)	0(0)	3(4.9)	1(1.6)	8(13.1)	0(0)	0(0)	1(1.6)	11(18.0)	61(100)	
'91~'95	104(53.2)	9(4.6)	3(1.5)	15(7.7)	16(8.2)	38(19.5)	0(0)	3(1.5)	6(3.1)	1(0.5)	195(100)	
'96~'01	265(47.4)	54(9.7)	3(0.5)	44(7.9)	60(10.7)	114(20.4)	3(0.5)	7(1.3)	7(1.3)	2(0.4)	559(100)	
계	424(47.5)	67(7.5)	6(0.7)	62(7.0)	77(8.6)	161(18.0)	3(0.3)	10(1.1)	17(1.9)	65(7.3)	892(100)	

(2) 연구자수

각 논문을 수행한 연구자수, 즉 공동연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에서 처럼, 총 892편의 논문 중에서 1인이 수행한 연구는 51.8%(462), 2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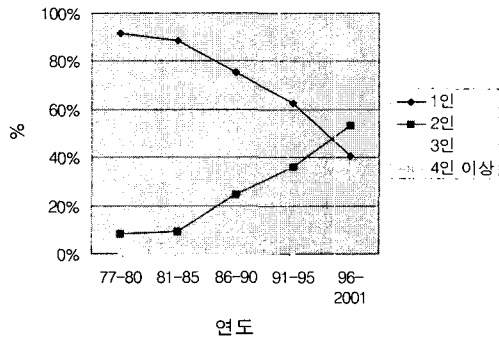
<그림 4> 연구자수 분포

<표 8> 연도별 연구자수

연도	연구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77~'80	22(91.7)	2(8.3)	0(0)	0(0)	24(100)
'81~'85	47(88.7)	5(9.4)	1(1.9)	0(0)	53(100)
'86~'90	46(75.4)	15(24.6)	0(0)	0(0)	61(100)
'91~'95	121(62.4)	70(36.1)	1(0.5)	2(1.0)	194(100)
'96~'01	226(40.4)	298(53.2)	30(5.4)	6(1.1)	560(100)
계	462(51.8)	390(43.7)	32(3.6)	8(0.9)	892(100)

동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인이 수행하는 단독연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인 연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단독 연구를 앞지르기 시작

했다. 3인이나 4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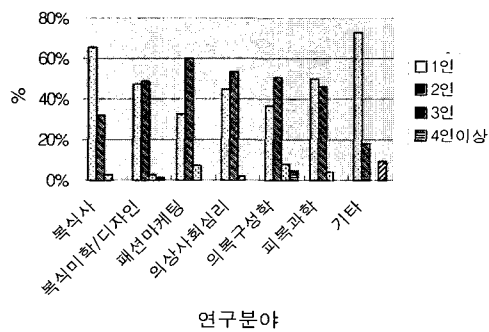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연구자수의 변화 추이

연구분야별로 연구자수를 보면 복식사 분야는 1인 연구가 6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복식미학/디자인을 비롯한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분야는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각각 51.8%, 67.4%, 55.3%, 63.6%, 50%로 나타났다<표 9>, <그림 6>.

<표 9> 연구분야별 연구자수

연구분야 연구자수	연구자수(%)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1인	233(65.1)	120(47.6)	44(32.6)	21(44.7)	23(36.5)	13(50.0)	8(72.7)
2인	115(32.1)	123(48.8)	81(60.0)	25(53.2)	32(50.8)	12(46.2)	2(18.2)
3인	9(2.5)	6(2.4)	10(7.4)	1(2.1)	5(8.0)	1(3.8)	0(0)
4인 이상	1(0.3)	3(1.2)	0(0)	0(0)	3(4.8)	0(0)	1(9.1)
계	358(100)	252(100)	135(100)	47(100)	63(100)	26(100)	11(100)



<그림 6> 연구분야별 연구자수

(3) 공동연구의 구성원

공동연구에 의해서 수행된 430편의 논문의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교수/대학원생의 공동연구가 37.2%(1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수/기타는 23.0%(99), 교수/교수는 16.0%(69), 기타는 1.6%(7)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자의 직위가 미기재된 논문이 22.1%(95)나 되었다.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는 대부분이 학위논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교수와 시간강사, 연구원, 패션업체종사자로 구성된 교수/기타의 비율이 2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시간강사의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0> 공동연구원 구성원 현황

연구자수(%)					
교수/교수	교수/기타	교수/대학원생	기타	미기재	계
16.0(69)	23.0(99)	37.2(160)	1.6(7)	22.1(95)	100(430)

연구분야별로 공동연구원 구성원 현황<표 11>을 보면, 복식사 분야는 교수/기타, 복식미학/디자인,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피복과학 분야는 교수/대학원생, 의복구성학 분야는 교수/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1> 연구분야별 연구원 구성 현황

연구자수(%)

연구분야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구성원								
단독연구		233(65.1)	120(47.6)	44(32.6)	21(44.7)	23(36.5)	13(50.0)	8(72.7)
공동연구	교수/교수	25(7.0)	12(4.8)	16(11.9)	3(6.4)	8(12.7)	2(7.7)	1(9.1)
	교수/대학원생	28(7.8)	60(23.8)	47(34.8)	12(25.5)	8(12.7)	5(19.2)	0(0)
	교수/기타	37(10.3)	32(12.7)	11(8.1)	3(6.4)	14(22.2)	3(11.5)	0(0)
	기타	4(1.1)	0(0)	2(1.5)	1(2.1)	0(0)	0(0)	0(0)
미기재		31(8.7)	28(11.1)	15(11.1)	7(14.9)	10(15.9)	3(11.5)	2(18.2)
계		358(100)	252(100)	135(100)	47(100)	63(100)	26(100)	11(100)

5. 연구비

(1) 연구비 수혜현황

연구비 수혜현황<표 12>을 보면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15.7%(140)만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까지는 단 1편의 연구만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던 반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7.7%(15),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22.1%(124)로 점차 연구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를 수혜받은 연구의 대부분이 복식지에 투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황덕순 등(1995)과 성화경 등(1994)의 연구를 보아도 의류학 분야의 연구비 수혜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연구분야별로 투고된 논문수에 대한 연구비 수혜율<표 13>은 기타(방법론, 교육)가 3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의복구성학 27.0%(17), 피복과학 19.2%(5), 복식미학/디자인 17.9%(45), 패션마케팅과 의상사회심리 17.0%(23), 복식사 10.6%(38) 순이었다.

반면 연구비를 지원받은 140편의 연구비 수혜현황을 연구분야별로 보면 복식미학/디자인 분야가 32.1%(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복식사 27.1%(38), 패션마케팅 16.4%(23), 의복구성학 12.1%(17), 의상사회심리 5.7%(8), 피복과학 3.6%(5), 기타 2.9%(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식지가 복식사와 복식미학, 디자인 분야의 논문의 게재율이 전체의 60.8%(607)를 차지한다고

<표 12> 연도별 연구비 수혜현황

논문수(%)

연도		'77~'80	'81~'85	'86~'90	'91~'95	'96~'01	계
요인	수혜	0(0)	1(1.9)	0(0)	15(7.7)	124(22.1)	140(15.7)
	비수혜	24(100)	52(98.1)	61(100)	179(92.3)	436(77.9)	752(84.3)

<표 13> 연구분야별 연구비 수혜현황

논문수(%)

연구분야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수혜	38(10.6)	45(17.9)	23(17.0)	8(17.0)	17(27.0)	5(19.2)	4(36.4)
비수혜	320(89.4)	207(82.1)	112(83.0)	39(83.0)	46(73.0)	21(80.8)	7(63.6)
계	358(100)	252(100)	135(100)	47(100)	63(100)	26(100)	11(100)

볼 때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높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2) 연구비 출처

연구비를 수혜받은 140편의 연구비 출처<표 14>를 분석한 결과, 교내 연구비가 72.9%(102), 한국학술진흥재단, 문교부, BK21, 한국과학재단, 기업체와 연구소 등의 교외 연구비가 27.1%(3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류학 연구의 대부분이 교내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외연구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52.6%(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외 연구비를 수혜받은 연구의 대표 연구자의 직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즉 교수가 50%(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교수 15.8%(6), 조교수 10.5%(4), 전임강사, 시간강사, 기타가 각각 2.6%(1)이었으며, 나머지 15.8%(6)는 대표 연구자의 직위가 미기재된 것이었다.

<표 14> 연구비 출처

논문수(%)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계
	한국학술진흥재단	문교부	BK 21	한국과학재단	기타(기업체 / 연구소)	소계	
102(72.9)	20(14.3)	5(3.6)	3(2.1)	2(1.4)	8(5.7)	38(27.1)	140(100)

연구분야별로 교외연구비 수혜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즉 복식사가 31.6%(12), 복식미학/디자인이 28.9%(11)를 차지하였고 패션마케팅이 15.8%(6), 의복구성학 13.2%(5), 피복과학 5.3%(2), 기타 5.3%(2) 순이었다. 그러나 복식사에 게재되는 논문의 대부분이 복식사와 복식미학/디자인 분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의류학 전반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시키기 보다는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분야에 대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6. 기타(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평균참고문헌수)

총 892편의 논문의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외국어가 2%(18)였고, 평균논문분량은 14.8, 평균참고문헌수는 29.0이었다<표 17>.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보면 논문 본문에 외국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였고, 평균논문분량이나 평균참고문헌수는 연도와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구분야별 교외연구비 수혜현황

논문수(%)

연구분야	복식사	복식미학 / 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계
수혜	12(31.6)	11(28.9)	6(15.8)	0(0)	5(13.2)	2(5.3)	2(5.3)	38(100)

<표 16> 대표연구자의 직위별 교외연구비 수혜현황

논문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기타	미기재	계
19(50)	6(15.8)	4(10.5)	1(2.6)	1(2.6)	1(2.6)	6(15.8)	38(100)

<표 17> 연도별 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및 평균참고문헌수

논문수(%)

연도별		'77~'80	'81~'85	'86~'90	'91~'95	'96~'01	계
사용 언어	한국어	24(100)	53(100)	61(100)	192(99.0)	544(97.1)	874(98)
	외국어	0(0)	0(0)	0(0)	2(1.0)	16(2.9)	18(2)
평균논문분량		14.8	15.2	13.4	14.5	14.9	14.8
평균참고문헌수		18.5	22.5	28.9	31.3	29.3	29.0

한편 연구분야별로 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평균참고문헌수는 <표 18>과 같다. 논문 본문에 사용된 외국어의 비율은 패션마케팅이 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복구성학 3.2%, 복식미학/디자인 2.8%, 의상사회심리 2.1% 순이었다. 평균논문분량은 복식미학/디자인이 1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복식사 14.7, 패션마케팅 14.1, 의상사회심리 14.0, 의복구성학 13.7, 기타 13.6, 피복과학 11.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참고문헌수는 복식미학/디자인이 3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복식사 30.1, 의상사회심리 29.3, 기타 28.6, 패션마케팅 27.8, 피복과학 19.5, 의복구성학 18.3 순이었다. 이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복식사와 복식미학/디자인 분야의 연구방법이 주로 문헌고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지의 발간 현황은 1977년 창간이후 90년 이전에는 연 1회씩 발행되다가 94년까지는 연 2회, 99년 이후 현재까지는 연 8회에 걸쳐 발간되고 있다. 연간 발간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게재되는 논문편수도 괄목할만한 양적팽창을 가져와 1977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은 65권에 892편에 달하고 있다.

둘째, 총 892편의 논문을 7개의 연구분야별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복식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복식미학/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복구성학, 의상사회심리, 피복과학, 기타 순이었다. 복식지 창간 초반에는 복식지에 게재된 연구의 대부분이 복식사 분야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복식미학/디자인 분야의 논문이 복식사 분야를 앞지

<표 18> 연구분야별 사용언어, 평균논문분량 및 평균참고문헌수

논문수(%)

연구분야		복식사	복식미학/디자인	패션 마케팅	의상 사회심리	의복 구성학	피복과학	기타
사용 언어	한국어	356(99.4)	245(97.2)	130(96.3)	46(97.9)	61(96.8)	26(100)	10(90.9)
	외국어	2(0.6)	7(2.8)	5(3.7)	1(2.1)	2(3.2)	0(0)	1(9.1)
평균논문분량		14.7	16.0	14.1	14.0	13.7	11.7	13.6
평균참고문헌수		31.4	30.1	27.8	29.3	18.3	19.5	28.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77년 창간호부터 2001년 51권 8호까지 한국복식학회지 [服飾]지에 게재된 총 892편의 논문을 내용분석함으로써 복식지의 연구동향과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

르기 시작하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패션마케팅,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분야의 논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고찰법이 사용되었고, 질문지조사법, 질적연구, 실험법 순으로 나타났으나, 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질문지법과 실험법

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연구분야별로는 복식사와 복식미학/디자인은 문헌고찰법을, 패션마케팅과 의상사회심리는 질문지조사법을, 의복구성학은 실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식사 분야는 시대의상을 고증하거나 미학적, 디자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복식미학/디자인 분야도 단순히 이론고찰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 창작이나 개발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가 1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원생과 조교, 시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전임강사,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원생과 조교의 비율이 17.3%를 차지한 것은 대부분이 학위논문으로서 지도교수와 공동연구에 의한 것이라 추정된다. 대표 연구자의 대학소재지 분포는 서울이 47.5%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경우는 1.1%, 대학이 아닌 연구소, 박물관, 패션업체 등의 기타는 1.9%에 불과했다. 이는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국제적 협동연구 산학협동에 의한 과제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 892편의 논문중에서 1인이 수행한 단독 연구가 51.8%, 2인 이상이 수행한 공동연구는 48.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인 이상의 연구가 1980년까지는 8.3%로 2편에 불과했던 반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59.7%로 공동연구가 단독연구를 앞서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야별로 연구자수는 복식사 분야는 1인 연구가 6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복식미학/디자인을 비롯한 패션마케팅, 의상사회심리,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분야는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동연구의 구성원은 교수/대학원생, 교수/기타, 교수/교수, 기타 순으로, 교수상호간의 공동연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15.7%만이 연구비를 수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것도 교내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비를 수혜받은 연구가 복식지에 투고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도 있으나 여하튼 의류학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교외 연구비의 수혜자는 교수가 50%로 가장 많았고, 부교

수, 조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임강사나 시간강사, 기타는 2.6%에 불과했다.

여섯째, 논문의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가 98%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평균논문분량은 14.8, 평균참고문헌수는 29.0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수 논문상을 수여하는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복식지의 연간 발간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게재되는 논문편수도 증가되어 괄목할만한 양적팽창을 가져왔다. 그러나 과연 양적팽창이 질적향상을 가져왔는지는 의문스럽다. 따라서 일년동안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모든 회원들 또는 평생 회원들이 인터넷 투표에 의해서 우수 논문상을 선정, 수여함으로써 의류학 분야 논문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복식지에 보다 더 우수한 논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에는 복식지의 질적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국제적 협동연구 및 산학연(관)간 협동연구, 그리고 학제적 협동 연구를 위한 노력이 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 2인 이상의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대부분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형태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류학 안에서의 전문화, 세분화된 각 전공분야간의 유기적인 연구는 물론,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학제적인 접근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한정된 학술집단의 자기만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복식지에 게재된 시대의상을 고증한 연구의 결과물이나 해마다 복식학회가 개최하고 있는 고증전에 전시된 의상들이 단순히 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요청 및 학회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하나의 방법은 고증 의상전을 지금과 같이 자유과제가 아닌 지정과제 형식으로 바꾸고, 출품된 작품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극히 소수의 작품만을 선정해서

정부의 지원 아래 역사적인 자료로써 보관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수혜에 관한 문제이다. 질적으로 우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구자의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겠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재원'이다. 그럼에도 복식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15.7%만이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대부분이 교내 연구비이고, 교외 연구비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는 의류학이 기초 학문 못지않게 과학중심의 연구비 지원정책으로 연구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문간 연구비의 뚜렷한 격차는 의류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문영역별로 균등하게 수혜되고 있지 못한 정부의 연구비 지원정책 개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며, 연구자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력체제와 공동연구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투고규정 및 논문사독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대표연구자의 직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직위를 기재하지 않은 논문이 23%나 되었다. 물론 대부분이 논문투고규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복식지 발간 초창기의 논문에서 나타난 것이었지만, 엄정한 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논문에서도 대표연구자의 직위나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거나 미기재된 연구들이 있었다. 앞으로 학회지를 대상으로 연구방법, 저자, 연구비 수혜여부 뿐만 아니라 참고문헌의 종류와 수, 인용빈도수 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될 전망이다므로 정확한 기록이 요구되며, 이를 논문사독 시에도 보다 더 엄격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총망라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의류학 분야 전반에 나타난 경향으로써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의류학 전문 학회지뿐만 아니라 인접학문 학회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비

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Goldsmith, E. B.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HE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1983, 207~213.
- 2) Montgomery, J.E. & Ritchey, S.J., Home Economics Research: Are we doing all we can?, *Journal of Home economics*, 67, 1975, 35~39.
- 3) Chowdhary, U., & Meacham, E, Changing focus of textiles and clothing within home economics: An analysis of two professional journa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1983~84, 15-18.
- 4) Barbara A. Oliver & Marianne Y. Mahoney, Th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An Empirical Examination, *CTRJ Volume 9 #3*, 1991.
- 5) Lix, L. M., Pairwise comparisons of means i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1995, 102-110.
- 6) Lanker, H. B., Paff, J. F. & Din, H. M., Most cited authors in Textiles and Apparel-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and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2), 1997, 184-199.
- 7) 문수재, 이기열,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984.
- 8) 김미자, 한국복식의 30년간 연구동향(1958~1989), 복식 15호, 1990.10
- 9)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권 1호, 1991.
- 10) 김정호, 90년대(1990-1998)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 -한국 의류학회지와 한국 복식학회지를 중심으로, 복식 46호, 1999.
- 11) 성화경, 이옥희, 유혜경, 한국 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Vol 18, No.5, 1994.
- 12) 황덕순, 한경미, 홍은실,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가정학회지*, 제 33권 3호, 1995.
- 13) 의류학 교과과정 연구 보고서, *한국의류학회*, 1999.
- 14) 송혁순, 대학교수의 연구생산성에 관한 논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1.
- 15) 김관복, 학제적 연구 중점지원 예정, *교수신문*, 2002. 3. 18.